

# 에너지 브리프<sup>1</sup>

## 2026년 3월

###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수급 영향 분석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석유 및 LNG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며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원유 및 천연가스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러한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특히 정유, 석유화학, 수송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란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의 석유 수급 구조를 바탕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부문별 영향 경로를 점검한다.

윤지영 부연구위원(jyyoon@keei.re.kr)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석유제품의 주요 수송 경로가 차단되며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NG의 경우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조달 차질은 석유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분쟁 국면 장기화 시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NG 도입가격 인상 압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2</sup>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 석유 수급 구조를 바탕으로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국제유가 변동 추이 및 주요 사건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3월 2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식적으로 폐쇄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되었다. 과거에도 해협 봉쇄 위협이 여러 번 있었지만 실제로 통행이 크게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분쟁 이후 원유 및 석유제품 이동량은 평시 대비 약 1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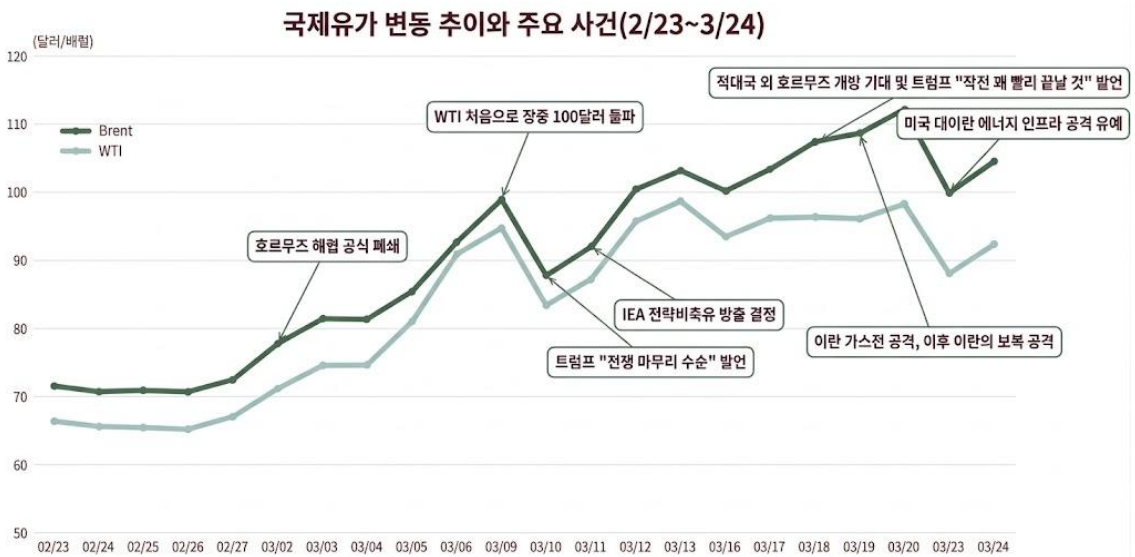
이후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 등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해협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며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었고,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약 4억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으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sup>1</sup> 에너지 브리프 이슈 내용은 주제와 관련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

<sup>2</sup> 국내 LNG 수입선 다원화로 전체 수입량 중 호르무즈 통과 물량은 '25년 기준 14.9%(카타르) 수준

<sup>3</sup> IEA, "Oil Market Report - March 2026"

그림 1 국제유가 변동 추이와 주요 사건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Petronet)

3월 중순 이후에는 미국이 예고한 대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유예되고 협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가격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재차 유예했음에도 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대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국제유가와 함께 천연가스와 LPG 등 다른 에너지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다. 3월 19일 아시아 LNG 가격지표인 JKM은 전쟁 이전 약 10 달러/MMBtu 수준에서 22.35 달러/MMBtu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같은 날 프로판, 부탄 등 LPG 가격(현물 기준)도 전쟁 이전 500달러 후반에서 1200달러대까지 상승하였다.

### 국내 석유 수급 구조 및 부문별 영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태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크게 가격 상승을 통한 비용 증가와 공급 차질에 따른 물량 감소의 두 측면에서 발생한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생산비용과 에너지 가격 전반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략비축유 방출 등 공동 대응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도 유류세 인하와 가격 안정 조치 등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상승에 더해 물량 측면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약 282만 배럴/일인데, 이 중 177만 배럴/일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공급된다. 원유 공급의 차질은 정유 생산을 감소시켜 석유제품의 국내 공급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원료 부족, 수송 부문과 가계의 연료 수급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비축 물량과 UAE 등을 통한 추가 공급으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이 역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가격 상승에 의한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공급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는 양상으로 확산되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절에서는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정유, 산업, 수송 및 가정·상업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 1) 석유정제 부문

석유정제 부문은 원유를 투입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전환부문으로, 국내 석유 수급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도입단가를 상승시켜 정유사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유 수급 자체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경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정유산업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매년 생산량의 약 40%를 수출하며, 석유제품은 2024년 전체 수출의 약 7.4%를 차지했다. 원유 공급이 제한되어 정유 생산량이 감소하면 경유·휘발유·항공유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부문을 넘어 무역수지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월 말 기준 현재 납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납사는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항공유·경유 등 주요 수출 품목까지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수출 감소의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 한국의 석유 수급 흐름



주: '기타'에는 국제벙커링, 재고비축, 자가소비 등이 포함됨

## 2) 산업 부문

산업부문은 국내 석유 최종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 부문으로, 이 중 90% 이상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소비된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소비되는 제품은 대부분 원료용으로, 납사의 비중이 약 80% 수준이며 최근에는 LPG(프로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납사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생산의 핵심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학소재 등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제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하루 평균 납사 소비량은 약 100만 배럴 수준이며, 이 중 55% 정도는 국내 생산을 통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 물량 중 약 77%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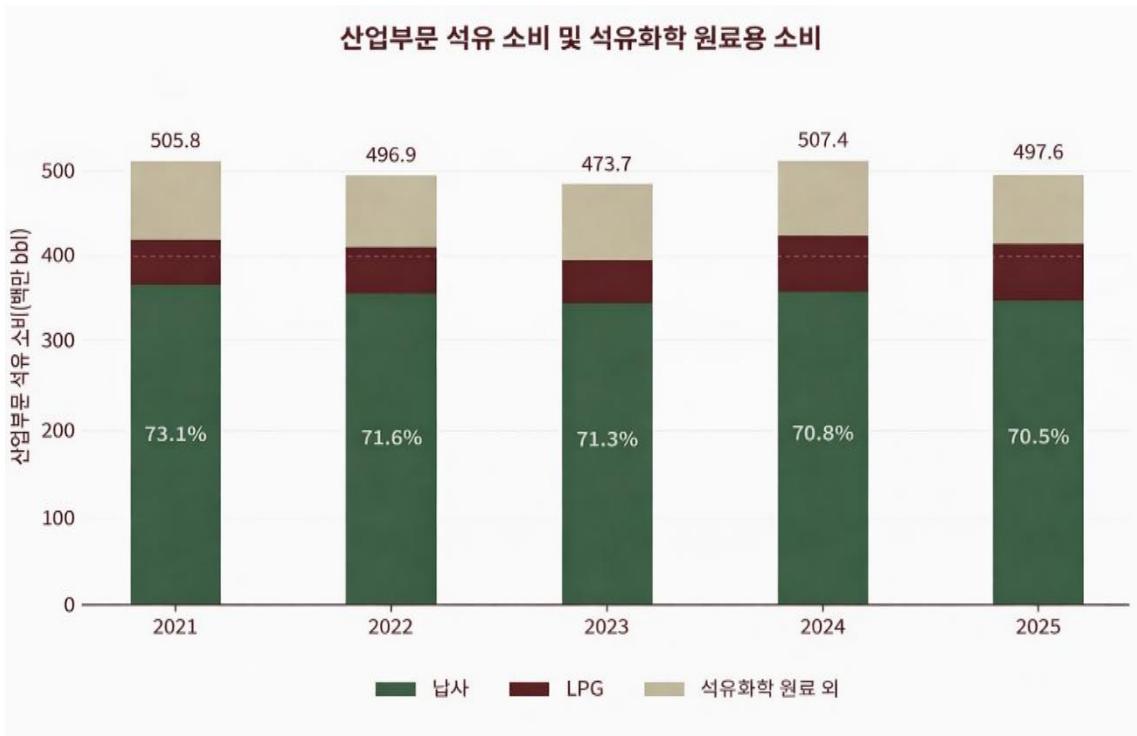
중동 지역에서 공급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원유 가격과 중동 지역의 수급 상황은 석유화학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격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원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석유화학 기업의 마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2022년 이후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에서 생산하는 기초유분의 수익성은 이미 손익분기점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비용 상승은 기업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나아가 원료 공급 측면에서 원유 수급 차질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중동에서 오는 물량도 막히게 되면 생산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여천NCC는 지난 4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다<sup>4</sup>. 최근 LPG가 납사를 일부 대체하며 투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납사에 비해 생산 가능한 제품군이 제한적이고 국제 LPG 가격 또한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납사를 충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3월 말 현재 정부는 납사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석유화학 제품 또한 제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석유화학 이외에 산업 부문 석유 수요는 주로 농림어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한다. 농림어업에서 사용되는 석유류는 주로 농업용 난방에 사용되는 실내등유와 어선용 경유 등으로, 전체 석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농업용 난방유(면세 실내등유)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농가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생활물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림 3 산업부문 석유 소비 및 석유화학 원료용 소비



### 3) 수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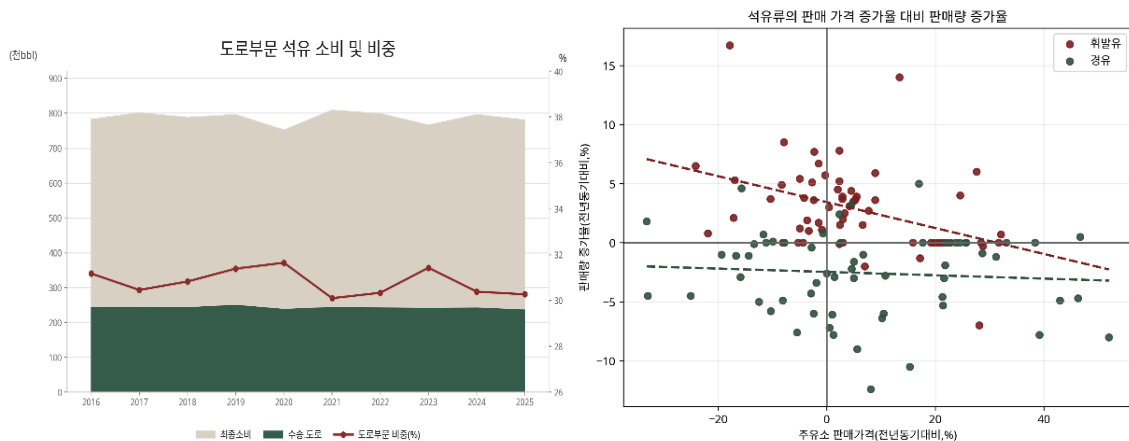
<sup>4</sup> “중동 쇼크에 여천NCC ‘불가항력’... 석유화학·고무·섬유 연쇄위기”, 한겨레, 2026.03.09.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휘발유와 경유 등 도로 운송용 연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가계와 기업이 에너지 가격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영역이다. 2024년 기준 도로부문 석유 소비는 약 2억 4천만 배럴로, 석유제품 최종소비의 약 31.9%를 차지한다. 이 중 휘발유의 비중은 약 36.2%(9억 4천만 배럴)로 승용차 중심으로 소비되고, 경유는 약 54.8%(1억 2천만 배럴)로 화물 및 물류 운송을 중심으로 소비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전체 차량의 약 4% 수준에 그쳐 수송 부문에서의 석유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수송용 유류 수요의 특징은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물류와 직결된 경유 수요는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워 비탄력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림 4)의 오른쪽 그래프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주유소 판매가격 증가율과 판매량 증가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이며, 경유는 그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유 차량은 등록대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32% 수준이지만 연료 소비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유는 수송 부문 내에서도 핵심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구조는 가격 상승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물류 및 유통 전반에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가격 안정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물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림 4 도로부문 석유 수요 및 석유류 가격 대비 판매량**



주: 주유소 판매가격 및 판매량은 2021~2025년 월별자료를 이용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 4) 가정 및 상업 부문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는 주로 난방용 등유와 상업용 LPG(프로판)가 사용되며 2024년 기준 소비량은 가정용 등유가 약 847만 배럴, 상업용 프로판이 약 1,200만 배럴이다. 전체 석유 소비에서 가정 및 상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등유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 난방 수단이며 LPG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에너지 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게 체감될 수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공급 차질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에서의 생산 차질, 수송 부문의 비용 증가 및 공급 제약, 그리고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활용과 가격 안정 조치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번 경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한국석유공사, “일일국제원유가격”, 한국석유공사 PETRONET, <https://www.petronet.co.kr> (2026.03.25.)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한겨레, “중동 쇼크에 여천NCC ‘불가항력’... 석유화학·고무·섬유 연쇄위기”, 2026.03.09.

IEA, “Oil Market Report – March 2026”

Refinitiv Eikon

# 1. 국제 에너지 가격

## 국제 에너지 시장

### □ 2월 국제유가, 연료탄, JKM은 전월 대비 각각 10.4%, 7.2%, 3.7% 상승

- 2월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요인과 중국의 선제적인 원유 비축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4% 상승
  -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과 그 전부터 실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국제유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 중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전략비축유를 공격적으로 비축하여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
  - ※ 중국 해관총서 2026년 1~2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당기간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
- 국제 연료탄 가격은 세계 1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2026년 생산 감축 발표로 인해 전월 대비 7.2% 상승
- 국제 가스 가격의 경우 JKM은 전월 대비 3.7% 상승, TTF, Henry Hub는 각각 4.9%, 26.7% 하락
  - 동북아 가격 지표인 JKM은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둔 안전 점검 강화로 일부 LNG 플랜트들이 가동을 중단하여 전월 대비 3.7% 상승, 유럽 가격 지표인 TTF는 1월의 북극한파가 물러난 영향으로 전월 대비 4.9% 감소
  - 미국 관측사상 두 번째로 따뜻했던 2월 이상 기온으로 인해 주거용 및 난방용 수요가 급감하여 미국 국내 천연가스 지표인 Henry Hub는 전월 대비 26.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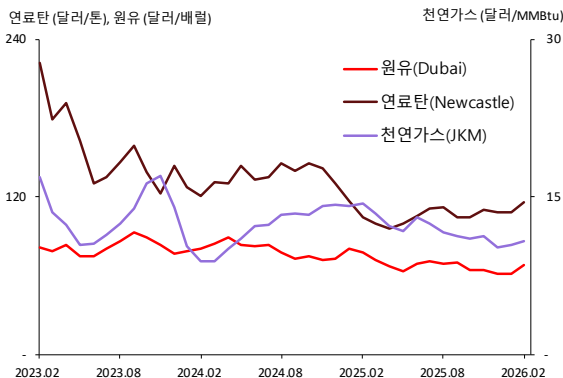
### 국제 에너지 가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원유 (달러/배럴)	96.4 (39.1)	82.1 (-14.8)	79.6 (-3.0)	70.0 (0.9)	65.0 (-7.2)	64.5 (-0.8)	62.1 (-3.8)	62.0 (-0.1)	68.4 (10.4)
석탄 (달러/톤)	357.1 (161.8)	174.7 (-51.1)	135.6 (-22.3)	104.5 (-6.8)	104.4 (-0.1)	110.4 (5.8)	108.6 (-1.6)	108.3 (-0.3)	116.0 (7.2)
천연가스 (달러/MMBtu)									
Henry Hub	6.5 (75.3)	2.7 (-59.1)	2.4 (-9.4)	3.0 (4.2)	3.4 (11.4)	4.5 (33.2)	4.4 (-1.6)	4.3 (-2.9)	3.1 (-26.7)
TTF	40.2 (149.6)	13.0 (-67.6)	11.0 (-15.9)	11.1 (0.0)	10.9 (-2.2)	10.4 (-4.4)	9.5 (-8.8)	11.8 (24.5)	11.2 (-4.9)
JKM	33.9 (89.1)	14.4 (-57.4)	11.9 (-17.7)	11.3 (-2.7)	11.1 (-1.8)	11.2 (1.2)	10.2 (-9.0)	10.4 (1.9)	10.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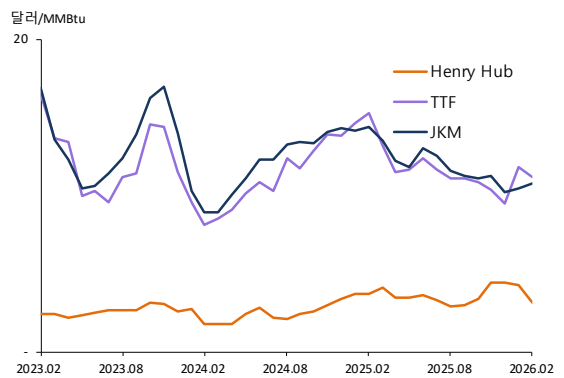
주: 원유는 두바이유, 석탄은 호주 뉴캐슬 연료탄 기준. 석탄과 천연가스는 선물 가격. (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 국제 에너지 가격



### 국제 천연가스 가격



## 국내 에너지 수입 가격

### □ 1월 원유, 석탄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2.8%, 8.9% 하락, LNG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2.1% 상승

- 1월 원유 수입 단가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기대로 인한 국제 유가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8% 하락
  - 12월 24일 배럴당 62.4달러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기대로 1월 8일 58.3달러까지 하락하여 1월 원유 수입단가 하락에 영향을 줌
  - 202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OPEC+의 증산으로 인한 원유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26년 1월 원유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2% 하락
- ※ 2025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약 1,360만 배럴로 미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석탄 수입 단가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원료탄 수입 비중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8.9% 하락
- LNG 수입 가격은 12월 미국-일본 노선 LNG 운임 지수 폭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1% 상승
  - 2025년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LNG 수출량 증가로 인해 LNG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5% 하락
- 1월 프로판 수입 가격과 부탄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7%, 9.6% 상승
  - 전월 대비 사우디 아람코 프로판 및 부탄 계약 가격이 각각 6.1%, 7.2% 상승한 영향
  - 2025년 OPEC+의 증산과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 프로판과 부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 6.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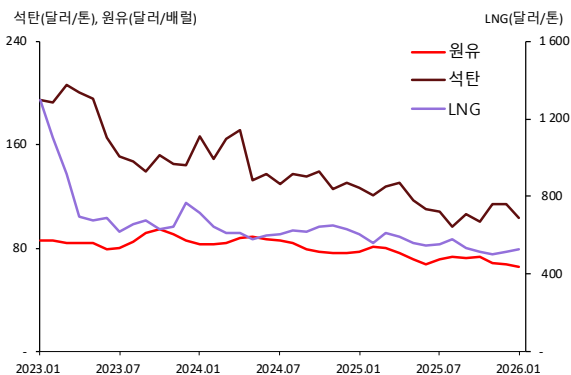
###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유 (달러/배럴)	102.3 (45.5)	85.9 (-16.1)	82.8 (-3.6)	73.2 (3.0)	72.8 (-0.6)	73.3 (0.8)	68.8 (-6.1)	67.6 (-1.7)	65.8 (-2.8)
석탄 (달러/톤)	225.6 (95.4)	168.7 (-25.2)	142.3 (-15.7)	96.2 (-11.1)	105.7 (9.9)	100.7 (-4.8)	113.5 (12.8)	113.0 (-0.4)	102.9 (-8.9)
LNG (달러/톤)	1 055.3 (91.6)	780.5 (-26.0)	628.4 (-19.5)	579.6 (5.1)	533.3 (-8.0)	514.1 (-3.6)	499.4 (-2.9)	513.9 (2.9)	524.5 (2.1)
프로판 (달러/톤)	756.3 (15.4)	626.4 (-17.2)	621.0 (-0.9)	520.9 (-4.6)	521.2 (0.0)	529.0 (1.5)	495.2 (-6.4)	525.2 (6.0)	539.3 (2.7)
부탄 (달러/톤)	756.9 (21.3)	615.6 (-18.7)	628.5 (2.1)	535.9 (0.6)	536.9 (0.2)	551.2 (2.7)	516.7 (-6.3)	516.0 (-0.1)	565.3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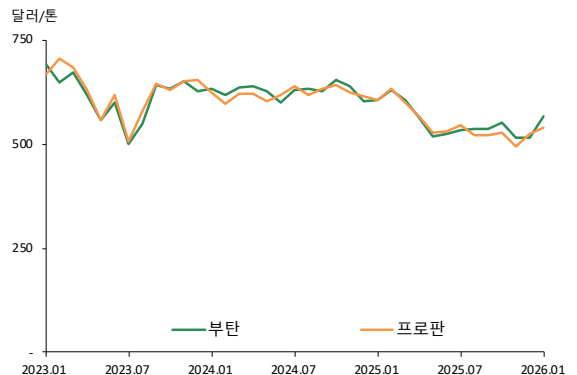
주: (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 국내 LPG 수입 단가



## 2. 국내 에너지 가격

### 석유제품 가격

#### □ 2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9%, 0.8%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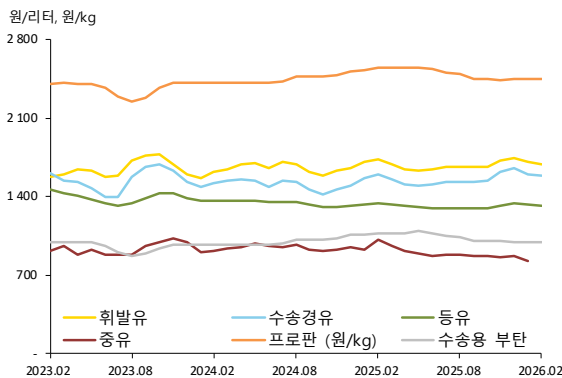
- 2026년 1월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1.4 달러로 전월 대비 5.8% 하락, 경유 가격은 82.4 달러로 보합세
  - 원화 환산시 2026년 1월 싱가포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667.7원, 754.1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6.3%, 0.7% 하락하여 전월 대비 하락한 환율의 영향을 반영
  - ※ 2026년 1월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56.5원으로 전월 대비 0.7% 하락
- 2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리터 당 763원, 523원 수준이며, 유류세 인하는 4월까지 연장 시행
- LPG 가격은 SK가스와 E1 등의 LPG 공급사가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사우디 아람코 LPG 계약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하여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가격 동결
- 산업용 프로판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프로판/도시가스)은 1.31로 전월 대비 1.6% 하락
  - 산업용 프로판 가격은 보합세이나 도시가스 요금은 전월 대비 1.7% 상승하여 상대가격이 하락

### 국내 석유제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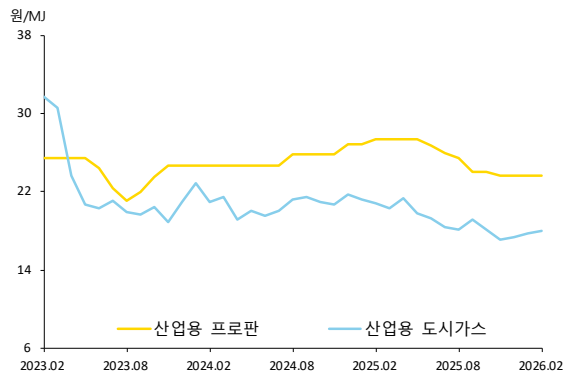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휘발유 (원/리터)	1 812.7 (13.9)	1 643.3 (-9.3)	1 646.8 (0.2)	1 659.9 (-0.4)	1 663.2 (0.2)	1 718.1 (3.3)	1 740.2 (1.3)	1 704.4 (-2.1)	1 688.6 (-0.9)
수송용 경유 (원/리터)	1 843.4 (32.4)	1 558.4 (-15.5)	1 502.6 (-3.6)	1 530.7 (-0.3)	1 536.8 (0.4)	1 619.1 (5.4)	1 650.5 (1.9)	1 600.1 (-3.1)	1 587.3 (-0.8)
등유 (원/리터)	1 487.4 (57.1)	1 399.5 (-5.9)	1 344.7 (-3.9)	1 291.9 (-0.1)	1 295.1 (0.3)	1 316.0 (1.6)	1 334.3 (1.4)	1 323.2 (-0.8)	1 312.2 (-0.8)
중유 (원/리터)	1 116.1 (52.4)	931.5 (-16.5)	938.5 (0.8)	864.4 (-1.5)	871.2 (0.8)	855.3 (-1.8)	873.2 (2.1)	828.6 (-5.1)	-
프로판 (원/kg)	2 480.1 (18.5)	2 372.0 (-4.4)	2 446.2 (3.1)	2 444.3 (-1.9)	2 445.6 (0.1)	2 442.6 (-0.1)	2 445.0 (0.1)	2 447.3 (0.1)	2 445.4 (-0.1)
수송용 부탄 (원/리터)	1 081.8 (16.0)	957.4 (-11.5)	995.3 (4.0)	1 000.6 (-3.6)	999.1 (-0.1)	998.3 (-0.1)	998.1 (-0.0)	998.2 (0.0)	998.0 (-0.0)

주: 휘발유, 경유, 부탄은 주유소/충전소 가격, 등유는 실내등유 가격, 중유는 대리점 가격, 프로판은 판매소 가격. (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석유공사

### 국내 석유제품 가격



### 산업용 프로판 도시가스 가격 비교



##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 □ 2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전월 대비 상승

-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의 경우 2024년 7월 인상 이후 변화가 없으며, 소매요금은 2025년 7월 인상 결정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서울도시가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함
-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가 전월 대비 0.4원/Mcal 상승한 15.6원/Mcal로 조정되어 전월 대비 각각 1.4%, 1.7% 상승
  - ※ 원료비는 소매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각 흡수월에 산정),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등) 원료비는 1개월 주기로 산정.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1년에 1회(도매 5월, 소매 7월) 조정

### □ 지역난방 열요금은 2024년 7월에 2023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10.6% 인상된 후 출공 동결

-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작년 7월 인상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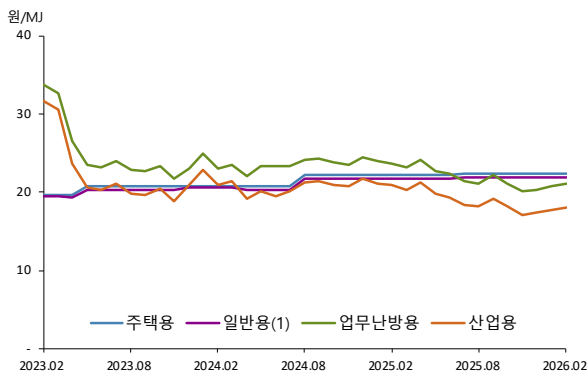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16.6 (16.8)	20.4 (22.8)	21.4 (4.9)	22.4 -	22.4 -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16.3 (17.4)	20.1 (23.2)	21.0 (4.6)	21.9 -	21.9 -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8.7 (66.6)	26.0 (-9.5)	23.6 (-8.9)	22.1 (4.7)	21.2 (-4.4)	20.1 (-5.2)	20.3 (1.3)	20.8 (2.1)	21.1 (1.4)
산업용	25.9 (79.9)	23.3 (-10.1)	20.9 (-10.5)	19.1 (5.5)	18.2 (-5.1)	17.1 (-6.0)	17.3 (1.5)	17.7 (2.5)	18.0 (1.7)
열에너지 (원/Mcal)									
주택용	74.2 (13.8)	96.1 (29.5)	107.0 (11.3)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96.4 (13.8)	124.8 (29.5)	138.9 (11.3)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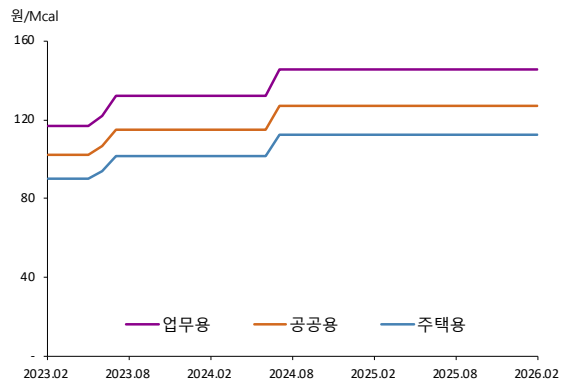
주: 월별 가격은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열 요금은 난방용 단일요금 기준(부가세, 기본요금 제외) (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열에너지 요금



## 전기 요금 및 연료비 단가

### □ 2월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

- 주택용 전력량 요금, 일반용 겨울철 전력량요금은 2023년 5월 요금 조정 이후 변화가 없으며, 산업용 겨울철 전력량 요금도 2024년 10월 요금 조정 이후 동일 수준 유지
-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산정되어 인하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고려하여 2025년 4분기와 동일한 5.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
- 기후환경요금도 2023년 1월 인상 이후 kWh당 9.0원을 유지함에 따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한 주택용,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 2월 LNG, 유연탄, 원자력 발전 연료비 단가는 각각 0.9%, 0.8%, 0.2% 상승

- LNG와 유연탄의 발전 연료비 상대 단가(LNG/유연탄)는 1.67로 전월 대비 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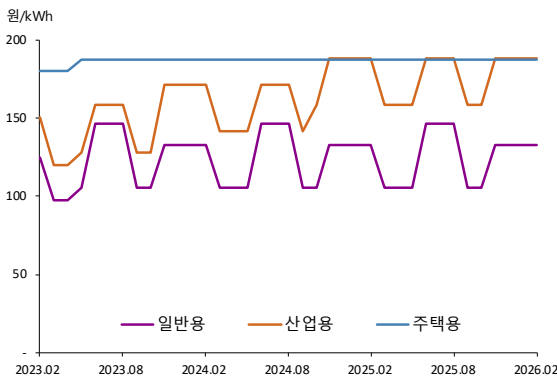
전기요금 및 발전 연료비 단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기요금 (원/kWh)									
주택용	157.2 (8.1)	185.4 (17.9)	188.0 (1.4)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일반용	94.2 (14.4)	122.4 (29.9)	125.0 (2.2)	105.9 (-27.7)	105.9 -	133.0 (25.6)	133.0 -	133.0 -	133.0 -
산업용	108.1 (15.1)	145.5 (34.5)	163.6 (12.5)	158.8 (-15.9)	158.8 -	188.8 (18.9)	188.8 -	188.8 -	188.8 -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LNG	204.6 (113.9)	179.6 (-12.3)	141.1 (-21.4)	120.6 (2.2)	115.5 (-4.2)	110.1 (-4.7)	110.1 (0.0)	117.7 (6.9)	118.8 (0.9)
유연탄	110.4 (96.3)	101.0 (-8.5)	76.3 (-24.5)	66.9 (-5.6)	65.1 (-2.7)	65.9 (1.2)	66.0 (0.2)	70.7 (7.2)	71.3 (0.8)
원자력	6.36 (2.5)	6.37 (0.2)	6.41 (0.6)	6.40 (0.1)	6.42 (0.2)	6.42 (0.1)	6.43 (0.1)	6.43 (0.1)	6.4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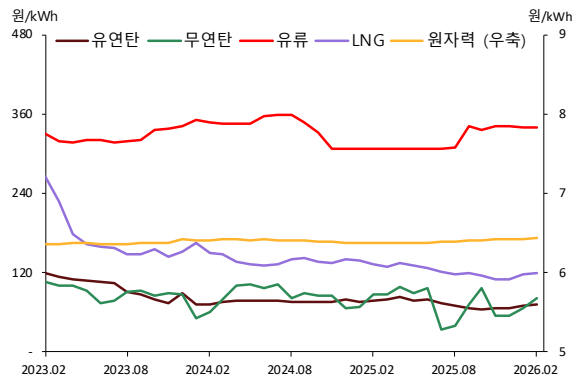
주: 전기 요금은 주택용(고압), 2구간 전력량 요금, 일반용(갑,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중간부하)을 사용하며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계약종별 전기 요금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 SMP 및 REC 가격

### □ 2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월 대비 4.8% 상승<sup>5</sup>

- 전국과 육지 SMP는 전월 대비 4.8% 상승하였으며, 제주 SMP는 전월 대비 5.4% 상승

※ 계통한계가격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며,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투입되는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산정

### □ 2월 REC 현물 가격은 7.13만원/REC로 전월 대비 0.5% 하락

- REC 거래량은 125.7만 REC로 전월 대비 20.5% 하락, 거래대금은 895.9억 원으로 전월 대비 20.9% 하락
- 2026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은 15.0%로 전년 대비 1.0%p 상승
  - 2026년 REC 발급량은 9,429만 REC로 2025년 RPS 의무공급량 대비 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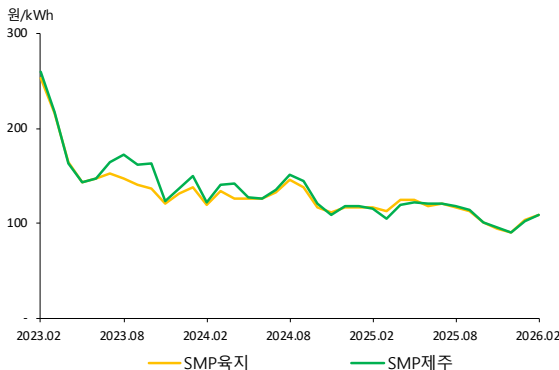
### SMP 및 REC 가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SMP(통합) (원/kWh)	196.7 (109.2)	167.1 (-15.6)	128.4 (-22.9)	112.9 (-3.8)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육지	196.0 (109.3)	167.0 (-15.4)	128.3 (-22.9)	112.9 (-3.8)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제주	252.2 (97.2)	176.9 (-30.3)	133.5 (-24.3)	114.1 (-3.7)	101.2 (-11.3)	95.8 (-5.3)	91.0 (-5.0)	102.9 (13.1)	108.5 (5.4)
SMP 결정 비중 (%)									
LNG	87.0	82.5	93.3	69.7	70.6	74.0	61.7	-	-
유연탄	11.5	14.9	6.1	28.5	28.6	24.7	38.0	-	-
유류	1.4	2.4	0.1	0.3	0.3	0.0	0.0	-	-
REC 현물가격 (천원/REC)	56.9 (64.3)	72.8 (27.9)	76.2 (4.6)	72.0 (0.2)	72.3 (0.5)	72.1 (-0.2)	72.3 (0.2)	71.7 (-0.9)	71.3 (-0.5)
REC 거래량 (만 REC)	1 374.3 (34.9)	1 446.1 (5.2)	1 372.1 (-5.1)	213.9 (22.2)	164.7 (-23.0)	165.2 (0.3)	191.8 (16.1)	158.1 (-17.6)	125.7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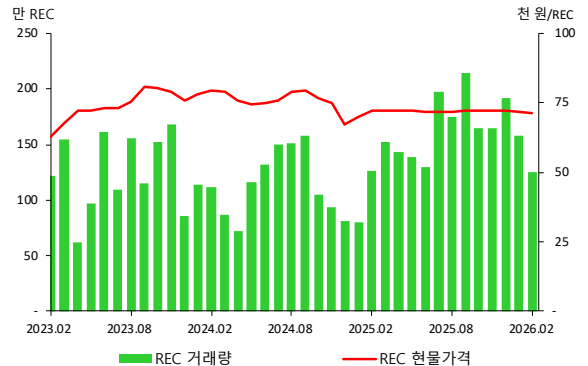
주: (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전력거래소

### SMP 가격



### REC 현물가격 및 거래량



<sup>5</sup> 당월 호를 작성하는 시점에 2월 SMP 결정 비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료비 단가 변화 외에 추가적 요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 3. 일차에너지소비 및 최종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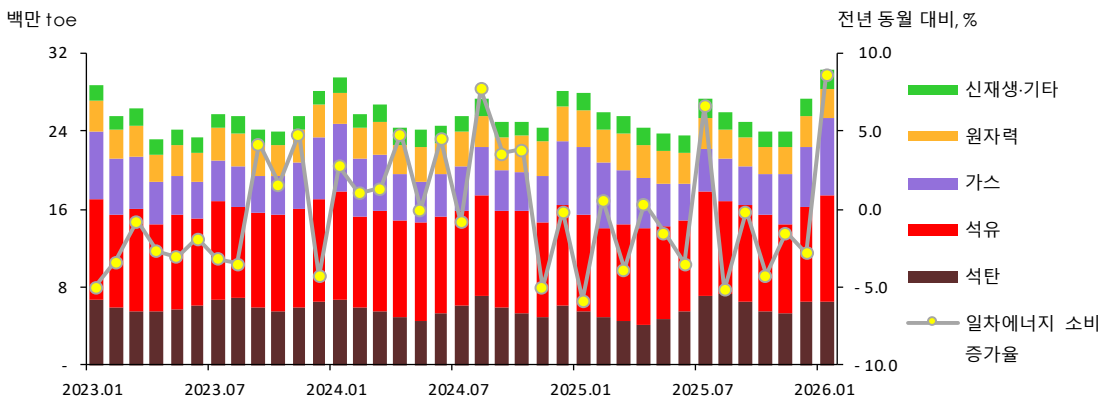
□ 1월 일차에너지 소비는 원자력 급감에도 석탄, 가스, 석유 소비가 급증하며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 석탄 소비는 산업, 발전 부문에서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 산업용은 철강업의 반등으로 1.9% 증가하였고, 발전용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발전 급감에 따른 영향으로 석탄 소비가 30.9% 급증
- 가스 소비는 발전, 산업, 건물용에서 모두 늘어나며 11.3% 증가. 기계류와 철강업은 자가발전용 소비가 각각 3.7%, 17.7% 증가하였고, 석유화학업은 신설 열병합 발전소의 영향으로 25.1% 증가
- 석유 소비는 석유화학업 소비 증가와 수송 부문의 여객 및 물류 수요가 늘며 13.0% 증가
- 원자력 발전은 예방정비로 정지한 원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기 증가하여 18.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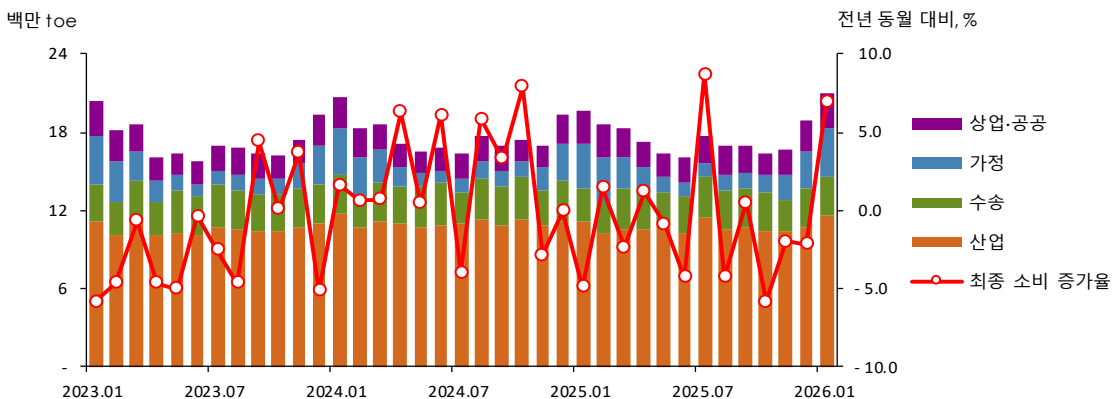
□ 에너지 최종 소비는 산업, 수송, 건물 부문에서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

- 산업 부문 소비는 설날 연휴 이동(25.1. → 26.2.)으로 근무일수(3.5일)가 증가하고 기저효과 등에 따라 주요 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며 4.1% 증가
- 수송 부문 소비는 도로 부문에서 휘발유, 경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22.4% 증가
- 건물 부문 소비는 가정 및 상업 부문의 동절기 난방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
- 에너지원별 최종 소비는 석탄, 석유, 가스, 전기, 열은 증가한 반면, 신재생·기타는 소폭 감소

일차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 <부록> 에너지 가격 및 수급 통계

### 국제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
<b>원유 (달러/배럴)</b>										
WTI	75.7	69.5	69.7	75.1	71.2	64.8	59.5	57.9	60.3	64.5
	(-2.4)	(-2.8)	(0.2)	(7.7)	(-5.2)	(-14.4)	(-1.0)	(-2.7)	(4.1)	(7.1)
Dubai	79.6	72.6	73.2	80.4	77.9	69.4	64.5	62.1	62.0	68.4
	(-3.0)	(-3.1)	(0.9)	(9.8)	(-3.1)	(-12.8)	(-0.8)	(-3.8)	(-0.1)	(10.4)
Brent	79.8	73.4	73.1	78.3	75.0	68.2	63.7	61.6	64.7	69.4
	(-2.9)	(-2.6)	(-0.4)	(7.1)	(-4.3)	(-14.5)	(-0.5)	(-3.2)	(5.0)	(7.2)
수입단가 (CIF)	82.8	76.6	76.2	77.5	80.9	73.4	68.8	67.6	65.8	-
	(-3.6)	(-1.1)	(-0.5)	(1.7)	(4.3)	(-11.4)	(-6.1)	(-1.7)	(-2.8)	-
<b>천연가스 (달러/MMBtu)</b>										
일본 수입 가격										
	12.8	12.8	12.6	13.2	12.8	12.0	11.2	11.3	11.5	11.5
	(-10.7)	(2.2)	(-1.4)	(4.4)	(-3.1)	(-6.3)	(0.5)	(1.5)	(1.5)	(-0.2)
Henry Hub	2.4	3.0	3.4	3.7	3.7	3.6	4.5	4.4	4.3	3.1
	(-9.4)	(15.7)	(14.2)	(9.2)	(0.5)	(50.4)	(33.2)	(-1.6)	(-2.9)	(-26.7)
NBP	10.8	14.3	14.2	15.0	15.2	11.8	10.6	9.7	12.4	10.5
	(-14.3)	(8.9)	(-0.7)	(5.4)	(1.2)	(8.6)	(-2.3)	(-7.8)	(26.9)	(-14.7)
TTF	10.9	13.9	13.8	14.7	15.3	11.9	10.4	9.5	11.8	11.2
	(-16.1)	(7.8)	(-0.5)	(6.1)	(4.1)	(9.1)	(-4.4)	(-8.8)	(24.5)	(-4.9)
JKM	11.9	14.1	14.3	14.2	14.4	12.3	11.2	10.2	10.4	10.8
	(-17.8)	(5.8)	(1.6)	(-1.3)	(1.7)	(3.3)	(1.2)	(-9.0)	(1.9)	(3.7)
수입단가 (달러/톤, CIF)	628.4	648.3	633.9	606.6	557.2	555.4	499.4	513.9	524.5	-
	(-19.6)	(0.3)	(-2.2)	(-4.3)	(-8.1)	(-11.6)	(-2.9)	(2.9)	(2.1)	-
<b>석탄 (달러/톤)</b>										
호주 뉴캐슬 연료탄										
	135.6	141.8	130.1	116.8	105.0	106.3	110.4	108.6	108.3	116.0
	(-22.4)	(-2.4)	(-8.3)	(-10.2)	(-10.1)	(-21.6)	(5.8)	(-1.6)	(-0.3)	(7.2)
수입단가 (CIF)	143.2	125.9	130.2	126.5	120.9	114.4	113.9	113.7	103.0	-
	(-15.6)	(-9.6)	(3.4)	(-2.8)	(-4.5)	(-20.1)	(13.0)	(-0.2)	(-9.4)	-
<b>석유제품 (달러/배럴)</b>										
휘발유										
	93.0	84.5	84.6	86.7	86.3	80.8	81.5	77.3	73.0	77.3
	(-5.8)	(-1.7)	(0.2)	(2.5)	(-0.5)	(-13.2)	(2.2)	(-5.2)	(-5.6)	(6.0)
경유	96.3	89.2	88.9	95.4	91.7	87.7	93.6	82.4	82.4	89.9
	(-9.6)	(1.5)	(-0.4)	(7.3)	(-3.9)	(-8.9)	(5.3)	(-12.0)	(0.0)	(9.1)
중유	74.0	71.6	70.2	75.4	76.7	66.2	56.5	53.7	57.6	67.1
	(3.1)	(-0.9)	(-1.8)	(7.3)	(1.8)	(-10.5)	(-6.3)	(-4.9)	(7.3)	(16.4)
프로판	610.4	635.0	635.0	625.0	635.0	565.0	475.0	495.0	525.0	545.0
	(6.2)	(1.6)	-	(-1.6)	(1.6)	(-7.4)	(-4.0)	(4.2)	(6.1)	(3.8)
부탄	607.5	630.0	630.0	615.0	625.0	546.3	460.0	485.0	520.0	540.0
	(5.3)	(1.6)	-	(-2.4)	(1.6)	(-10.1)	(-3.2)	(5.4)	(7.2)	(3.8)
납사	72.3	69.7	69.0	72.8	72.1	64.4	61.7	58.5	59.3	65.7
	(4.5)	(-4.5)	(-0.9)	(5.5)	(-1.0)	(-10.8)	(-0.0)	(-5.3)	(1.4)	(10.9)

주 1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001%, 중유는 고유황중유(180cst/3.5%), 프로판과 부탄은 CP 기준 값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한국무역협회

## 국내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
<b>석유제품</b>										
휘발유 (원/리터)	1 646.6 (0.2)	1 628.3 (2.3)	1 653.6 (1.6)	1 709.3 (3.4)	1 728.3 (1.1)	1 680.6 (2.1)	1 718.1 (3.3)	1 740.2 (1.3)	1 704.4 (-2.1)	1 688.6 (-0.9)
등유 (원/리터)	1 344.7 (-3.9)	1 309.8 (-0.0)	1 312.6 (0.2)	1 327.9 (1.2)	1 341.4 (1.0)	1 312.3 (-2.4)	1 316.0 (1.6)	1 334.3 (1.4)	1 323.2 (-0.8)	1 312.2 (-0.8)
경유 (원/리터)	1 502.6 (-3.6)	1 461.0 (2.8)	1 497.2 (2.5)	1 563.6 (4.4)	1 594.0 (1.9)	1 553.2 (3.4)	1 619.1 (5.4)	1 650.5 (1.9)	1 600.1 (-3.1)	1 587.3 (-0.8)
중유 (원/리터)	938.4 (0.7)	928.7 (1.3)	946.9 (2.0)	927.9 (-2.0)	1 014.3 (9.3)	901.9 (-3.9)	855.3 (-1.8)	873.2 (2.1)	828.6 (-5.1)	- -
프로판 (원/kg)	2 446.1 (3.1)	2 477.1 (0.1)	2 521.6 (1.8)	2 522.4 (0.0)	2 547.0 (1.0)	2 501.3 (2.3)	2 442.6 (-0.1)	2 445.0 (0.1)	2 447.3 (0.1)	2 445.4 (-0.1)
부탄 (원/리터)	995.2 (3.9)	1 029.9 (1.3)	1 058.3 (2.8)	1 059.0 (0.1)	1 073.9 (1.4)	1 044.2 (4.9)	998.3 (-0.1)	998.1 (-0.0)	998.2 (0.0)	998.0 (-0.0)
<b>도시가스 (원/MJ)</b>										
주택용	21.4 (4.9)	22.3 -	22.3 -	22.3 -	22.3 -	22.3 (4.4)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21.0 (4.6)	21.8 -	21.8 -	21.8 -	21.8 -	21.8 (3.9)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3.6 (-9.1)	23.5 (-1.3)	24.5 (4.1)	24.0 (-2.1)	23.7 (-1.2)	22.2 (-6.1)	20.1 (-5.2)	20.3 (1.3)	20.8 (2.1)	21.1 (1.4)
산업용	20.8 (-10.6)	20.7 (-1.4)	21.7 (4.7)	21.2 (-2.4)	20.9 (-1.4)	19.2 (-7.7)	17.1 (-6.0)	17.3 (1.5)	17.7 (2.5)	18.0 (1.7)
<b>열 (원/Mcal)</b>										
주택용	106.9 (11.3)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5.0)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38.8 (11.3)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5.0)	145.8 -	145.8 -	145.8 -	145.8 -
공공용	121.3 (11.3)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5.0)	127.3 -	127.3 -	127.3 -	127.3 -

주 :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 국내 전력 및 REC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
<b>전기 (원/kWh)</b>										
주택용	174.0 (1.6)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일반용	111.1 (2.5)	119.0	119.0	119.0	119.0	111.1	119.0	119.0	119.0	119.0
산업용	149.6 (13.8)	174.8	174.8	174.8	174.8	162.3 (8.5)	174.8	174.8	174.8	174.8
기후환경요금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연료비조정요금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b>발전 연료비단가 (원/kWh)</b>										
유류	342.7 (3.8)	307.0 (-7.8)	307.7 (0.2)	307.8 (0.0)	308.4 (0.2)	319.1 (-6.9)	342.1 (1.5)	341.6 (-0.2)	341.0 (-0.2)	341.1 (0.0)
LNG	141.1 (-21.6)	135.5 (-1.0)	141.3 (4.3)	138.6 (-1.9)	132.9 (-4.1)	124.2 (-12.0)	110.1 (-4.7)	110.1 (0.0)	117.7 (6.9)	118.8 (0.9)
무연탄	83.9 (-10.1)	84.7 (-1.4)	67.2 (-20.7)	67.5 (0.5)	88.2 (30.7)	73.4 (-12.5)	54.7 (-43.1)	55.8 (2.0)	66.9 (19.9)	82.4 (23.2)
유연탄	76.2 (-24.6)	76.4 (1.7)	80.4 (5.2)	76.4 (-5.0)	78.1 (2.2)	73.7 (-3.3)	65.9 (1.2)	66.0 (0.2)	70.7 (7.2)	71.3 (0.8)
원자력	6.41 (0.6)	6.40 (-0.0)	6.38 (-0.3)	6.38	6.37 (-0.2)	6.39 (-0.3)	6.42 (0.1)	6.43 (0.1)	6.43 (0.1)	6.44 (0.2)
<b>SMP (원/kWh)</b>										
SMP육지	128.3 (-23.2)	112.3 (-4.2)	116.6 (3.8)	117.1 (0.5)	116.4 (-0.6)	112.7 (-11.8)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SMP제주	133.5 (-24.5)	108.7 (-9.9)	118.2 (8.7)	118.9 (0.6)	116.1 (-2.4)	112.5 (-15.3)	95.8 (-5.3)	91.0 (-5.0)	102.9 (13.1)	108.5 (5.4)
SMP통합	128.4 (-23.2)	112.2 (-4.3)	116.6 (3.9)	117.1 (0.5)	116.4 (-0.6)	112.7 (-11.8)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b>REC</b>										
REC 평균가격 (천원/REC)	76.2 (4.7)	75.0 (-2.4)	67.2 (-10.5)	69.8 (3.9)	72.2 (3.4)	71.9 (-5.6)	72.1 (-0.2)	72.3 (0.2)	71.7 (-0.9)	71.3 (-0.5)
REC 거래량 (천 REC)	1 143.5 (-5.1)	936.4 (-10.3)	816.9 (-12.8)	803.4 (-1.7)	1 260.0 (56.8)	1 566.2 (37.0)	1 651.9 (0.3)	1 918.4 (16.1)	1 581.2 (-17.6)	1 256.8 (-20.5)

주 1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전기요금은 주택용(고압, 201~400kWh), 일반용(갑) I,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선택 II 중간부하) 기준

3 연간 및 월간 SMP는 시간대별 SMP를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고, 연초 누계(ex. 1~N월) SMP는 월간 SMP를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 일차에너지 소비

	2022년	2023년	2024년p			2025년p			2026년p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석탄 (백만 톤)	124.3 (-3.7)	120.5 (-3.1)	113.1 (-6.1)	8.2 (-15.4)	10.1 (-6.4)	9.1 (-18.7)	111.3 (-1.6)	8.9 (8.1)	10.6 (4.5)	10.7 (17.4)
- 원료탄 제외	100.7 (-2.7)	96.4 (-4.3)	89.3 (-7.3)	6.3 (-17.6)	8.1 (-7.8)	7.2 (-21.9)	88.3 (-1.1)	7.0 (10.4)	8.5 (6.1)	8.7 (20.3)
석유 (백만 bbl)	814.5 (-1.9)	779.7 (-4.3)	803.1 (3.0)	64.7 (-2.5)	68.6 (-0.6)	65.5 (-9.5)	780.5 (-2.8)	61.6 (-4.9)	66.9 (-2.6)	74.0 (13.0)
가스 (백만 toe)	59.4 (-0.3)	57.1 (-3.8)	61.0 (6.8)	4.8 (0.4)	6.6 (4.4)	7.0 (-0.1)	60.4 (-1.0)	5.0 (4.3)	6.1 (-7.6)	7.8 (11.3)
- 천연가스 (백만 톤)	45.4 (0.1)	43.5 (-4.2)	46.4 (6.7)	3.8 (-2.0)	5.2 (4.8)	5.4 (-0.9)	46.1 (-0.7)	3.9 (4.0)	5.0 (-3.9)	6.1 (13.0)
- 도시가스 (십억 m3)	-0.1 (-123.7)	0.2 (-371.6)	0.3 (56.3)	-0.2 (-43.5)	-0.3 (15.6)	-0.0 (-60.6)	0.1 (-71.7)	-0.1 (-3.0)	-0.5 (83.6)	-0.2 (322.5)
원자력 (TWh)	176.1 (11.4)	180.5 (2.5)	188.8 (4.6)	16.1 (2.7)	16.7 (2.5)	17.9 (19.6)	184.7 (-2.2)	13.1 (-19.1)	15.4 (-7.6)	14.6 (-18.1)
신재생·기타 (백만 toe)	16.7 (10.9)	18.4 (10.4)	19.6 (6.5)	1.4 (0.0)	1.7 (16.9)	1.6 (1.9)	20.9 (6.8)	1.7 (16.3)	1.8 (5.0)	1.9 (15.6)
<b>총에너지 (백만 toe)</b>	<b>309.9 (0.7)</b>	<b>304.9 (-1.6)</b>	<b>310.8 (1.9)</b>	<b>24.4 (-5.0)</b>	<b>28.2 (-0.1)</b>	<b>27.9 (-5.8)</b>	<b>305.1 (-1.8)</b>	<b>24.0 (-1.5)</b>	<b>27.4 (-2.8)</b>	<b>30.3 (8.7)</b>

주: p는 잠정치, ( )는 전년/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 총에너지 소비를 향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2022년	2023년	2024년p			2025년p			2026년p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석탄	24.2	23.9	22.1	20.5	21.7	19.9	22.1	22.4	23.3	21.5
석유	39.1	38.7	39.0	39.8	36.5	35.4	38.3	38.1	36.2	36.3
가스	19.2	18.7	19.6	19.7	23.2	25.2	19.8	20.9	22.1	25.8
- 천연가스	19.2	18.7	19.5	20.4	24.2	25.3	19.8	21.5	23.9	26.3
- 도시가스	-0.0	0.1	0.1	-0.6	-1.0	-0.1	0.0	-0.6	-1.8	-0.5
원자력	12.1	12.6	12.9	14.1	12.6	13.7	12.9	11.6	12.0	10.3
신재생·기타	5.4	6.0	6.3	5.9	5.9	5.8	6.9	6.9	6.4	6.1
<b>총에너지</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주: p는 잠정치,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향한 값, 가스는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향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 최종 소비

(단위: 백만 to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p			2026년p		
			11월	12월	1월	2월	3월	11월	12월	1월
산업	129.6 (-3.0)	126.5 (-2.4)	132.6 (4.9)	10.9 (2.1)	11.2 (2.3)	11.2 (-4.7)	127.8 (-3.7)	10.4 (-4.2)	10.6 (-5.0)	11.7 (4.1)
수송	36.3 (-0.9)	35.3 (-2.7)	35.0 (-1.0)	2.7 (-10.7)	3.0 (-0.1)	2.4 (-19.4)	34.1 (-2.6)	2.5 (-7.8)	3.0 (1.1)	3.0 (22.4)
가정	23.6 (2.8)	22.3 (-5.3)	22.2 (-0.7)	1.8 (-10.3)	3.0 (-3.5)	3.5 (0.3)	22.9 (3.1)	1.9 (6.6)	2.9 (-1.8)	3.7 (6.3)
상업·공공	24.1 (4.0)	24.4 (1.3)	23.0 (-5.8)	1.7 (-10.6)	2.2 (-6.4)	2.6 (4.8)	25.2 (9.6)	1.9 (12.8)	2.3 (7.5)	2.7 (5.2)
<b>최종 소비</b>	<b>213.5</b> (-1.3)	<b>208.5</b> (-2.3)	<b>212.7</b> (2.0)	<b>16.9</b> (-2.9)	<b>19.3</b> (-0.1)	<b>19.7</b> (-4.9)	<b>209.9</b> (-1.4)	<b>16.6</b> (-2.0)	<b>18.9</b> (-2.2)	<b>21.1</b> (6.9)
석탄 (백만 톤)	48.3 (-10.2)	48.4 (0.2)	47.7 (-1.6)	3.8 (-9.7)	4.3 (4.5)	3.9 (-7.6)	44.2 (-7.2)	3.7 (-2.2)	3.9 (-9.4)	4.0 (1.9)
석유제품 (백만 bbl)	798.9 (-1.3)	766.2 (-4.1)	796.4 (3.9)	64.6 (-0.1)	66.9 (-0.6)	65.5 (-7.7)	780.7 (-2.0)	61.6 (-4.6)	65.9 (-1.5)	73.0 (11.5)
- 비에너지유 제외	345.8 (-1.4)	338.5 (-2.1)	332.1 (-1.9)	26.7 (-8.9)	30.7 (-1.3)	25.8 (-19.1)	318.5 (-4.1)	24.4 (-8.7)	30.4 (-1.1)	31.0 (20.1)
전기 (TWh)	534.3 (2.7)	532.7 (-0.3)	536.5 (0.7)	40.9 (-2.2)	44.3 (-1.7)	47.8 (-1.6)	536.7 (0.0)	41.1 (0.6)	44.3 (-0.1)	48.3 (1.0)
천연가스 (백만 톤)	1.6 (1.0)	2.2 (33.2)	3.3 (51.9)	0.3 (73.9)	0.3 (39.2)	0.3 (25.6)	3.7 (12.7)	0.3 (-4.4)	0.4 (19.3)	0.4 (16.4)
도시가스 (십억 m³)	23.4 (2.9)	21.7 (-7.3)	21.3 (-1.8)	1.7 (-11.8)	2.8 (-3.0)	3.2 (-0.2)	21.8 (2.3)	1.8 (7.8)	2.7 (-1.6)	3.4 (6.2)
열·신재생·기타 (천 toe)	10.2 (3.7)	10.2 (-0.3)	10.2 (0.2)	0.8 (-3.9)	1.1 (-1.6)	1.2 (-3.8)	10.5 (2.5)	0.8 (0.3)	1.1 (-2.2)	1.2 (4.4)

주: p는 잠정치,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 최종 소비 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p			2026년p		
			11월	12월	1월	2월	3월	11월	12월	1월
산업	60.7	60.7	62.3	64.0	57.9	56.8	60.9	62.6	56.2	55.3
수송	17.0	16.9	16.4	15.7	15.6	12.4	16.2	14.8	16.1	14.2
가정	11.0	10.7	10.4	10.4	15.3	17.7	10.9	11.3	15.3	17.6
상업·공공	11.3	11.7	10.8	9.9	11.3	13.1	12.0	11.3	12.4	12.9
석탄	14.4	14.9	14.3	14.2	14.0	12.7	13.6	14.2	13.1	12.3
석유제품	47.1	46.3	47.0	47.9	43.7	41.6	46.6	46.2	43.6	43.2
- 비에너지유 제외	21.0	21.0	20.1	20.2	20.4	16.8	19.6	18.8	20.7	18.9
전기	21.5	22.0	21.7	20.7	19.7	20.9	22.0	21.3	20.1	19.7
천연가스	1.0	1.4	2.0	2.4	2.3	2.2	2.3	2.3	2.8	2.4
도시가스	11.2	10.6	10.2	10.0	14.6	16.6	10.6	11.0	14.7	16.5
열·신재생·기타	4.8	4.9	4.8	4.8	5.7	6.1	5.0	4.9	5.7	5.9

주: p는 잠정치,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